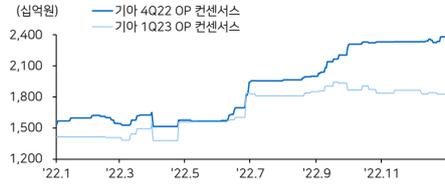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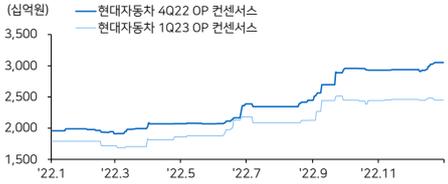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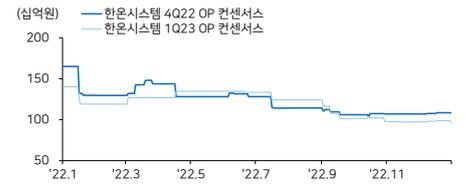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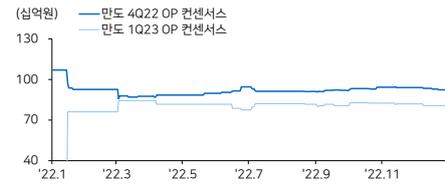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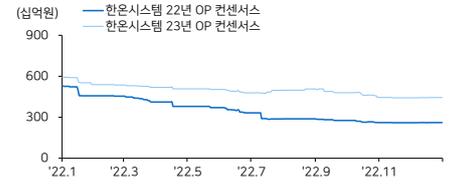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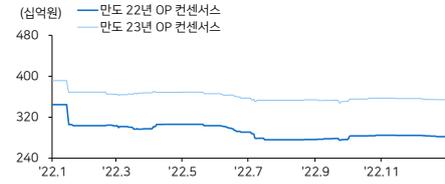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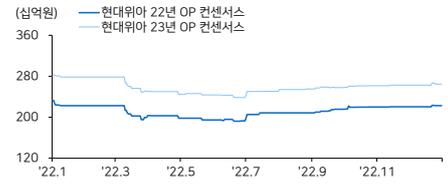


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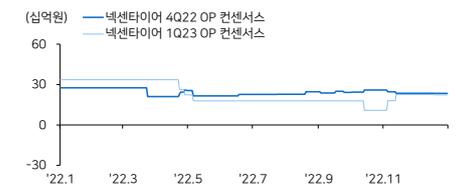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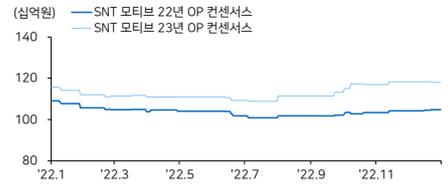
현대차 / 기아 / 현대모비스



현대위아 / 만도 / 한온시스템



SNT모티브 / 한국타이어 / 넥센타이어

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국내외 주요 뉴스

'모델 Y는 SUV' 美IRA 세제 혜택 받는다...테슬라, 가격 즉각 인상 (이데일리)

IRA의 SUV EV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소형 SUV차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규정이 바뀌면서 Tesla Model Y 세액공제 판매가격 기준이 \$55,000에서 \$80,000으로 상승. 이에 Model Y 가격이 소폭 인상됨.
<https://bit.ly/40yNoDI>

라인강서 리튬 캔다오?...친환경 전기차에 자연환경 뒤집는 유럽 (중앙일보)

유럽 각국은 전기자동차(EV) 시대를 맞아 수요가 폭증한 희토류(rare earth)와 리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. 또한 리튬 광산 개발 역시 속도를 내며 2025~2030년 생산이 계획되어 있음.
<https://bit.ly/3Rydcvk>

U.S. says more Tesla, Ford, GM EVs eligible for tax credits (Reuters)

미국 재무부가 IRA 법안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 정의를 수정, 크로스오버 SUV도 80,000달러 가격 상한선이 적용됨. 이에 GM 캐딜락, Tesla 5인승 모델 Y, VW ID.4, 포드 마하E 등의 가격 상한이 55,000달러에서 80,000달러로 상승.
<https://reut.rs/3YbMNPj>

Carmaker BMW to invest around \$870 million in Mexico in EV push (Reuters)

BMW는 멕시코에 8억 유로를 투자, 고전압 배터리와 BEV 모델 'Neue Klasse'를 생산할 예정. 2024년 확장 공사와 배터리 조립을 시작하고 2027년 초 생산을 시작할 계획. BMW는 2030년까지 전체 판매의 50%를 전기차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.
<https://reut.rs/3JL0y8G>

日 소니, 도카-요시다 투름 체제 전환...전기차 키운다 (조선비즈)

소니그룹이 도토키 히로키 부사장을 사장 겸 COO로 승격. 요시다 겐이치로가 CEO직을 계속 맡으면서 소니는 투름 체제로 경영 체제를 개편. 이로 인해 전기차 등 성장 영역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설명.
<https://bit.ly/3HAXzU>

기아 '카니발' 공장 멈춘다...반도체 공급 차질 (헤럴드경제)

기아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'사이드 임팩트 센서' 차량용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'카니발', 'K9' 등을 생산하는 경기 광명 1공장을 2/9~2/13일간 가동 중단할 예정. NXP 말레이시아 공장 설비 이상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.
<https://bit.ly/3Dl90n1>

Tesla sells 66,051 China-made vehicles in Jan, CPCA data show (CNEV Post)

Tesla가 지난 1월 상해공장에서 66,051대를 인도. 이는 1년 전 59,845대보다 10.37%, 12월 55,796대보다 18.38% 증가한 수치. Tesla는 1월 6일 중국 가격을 인하했으며 현재 연간 상해공장 생산능력은 약 110만대로 예상됨.
<https://bit.ly/3JfCmez>

Ford Mustang Mach-E has a mile of wires it doesn't need. That's a big deal (CNN)

Ford CEO 짐 콜리는 '머스탱 마하E 배선'이 필요한 것보다 1.6km 길고 70lb 무거우며 그것이 \$300의 배터리 불필요한 배터리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들었다며 완성차 업체의 EV 개발이 쉽지 않음을 시사.
<https://cnn.it/3X6Zoo>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 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 아니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